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등 포름알데히드 검사...82건 모두 불검출

- 배추김치 50건, 배추 29건, 절임배추 3건, 총 82건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배추, 절임배추 총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검사는 배추김치 50건, 배추 29건, 절임배추 3건이었으며, 현재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중국 제조·포장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중국 주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중국의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체(HACCP 인증업소 55개소)의 원료 배추 구매처를 조사한 결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생산된 배추를 사용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참고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배추김치의 경우 2024년 10월 이후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검사강화 조치(8.24.) 이후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해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진행하는 등 수입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해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책임자	과 장	남백상 (043-719-6251)
		담당자	사무관	최충렬 (043-719-6259)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철희 (043-719-2201)
		담당자	사무관	유행일 (043-719-2210)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책임자	과장(직대)	장귀현 (043-719-4204)
		담당자	연구관	권찬혁 (043-719-4203)